

## 광주일고 “오늘 우승 헝가래”

### 선발 장민제 1실점 쾌투 서울고 5-1 꺾고 결승행

■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광주일고가 제 62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에 올라 31일 이 대회 4번째 패권을 도전한다.

광주일고는 30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벌어진 서울고와의 대회 준결승에서 선발 장민제의 호투와 타선의 집중력을 발휘해 5-1로 승리, 4번째 우승을 노리게 됐다.

이날 광주일고는 초반부터 매서운 타격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광주일고는 1회 첫 타자 정승인이 내야 안타로 출루한 뒤 상대 유격수 예러로 1사 2,3루 찬스서 4번타자 조영선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은 후 김태형의 2루타로 1점을 추가해 2-0으로 앞서 나갔다.

기세가 오른 광주일고는 이어진 2회에도 윤민섭의 솔로포 등으로 2점을 보태, 서울고 선발 전인환을 일찌감치 마운드에서 끌어내리며 4-0으로 달아났으며 8회초 1사 1,3루서 스쿼트 번트도 1점을 추가해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광주일고 선발 장민제의 구위에 놀려 0의 행진을 하던 서울고는 7회말 안치홍이 좌전안타를 치고 나간 뒤 광주일고 실책과 최성민의 유격수 땅볼을 묶어 1점을 만회하는데 그쳤다.

광주일고 선발 장민제는 4회까지 서울고 타선을 삼자범퇴로 돌려세우는 등 9이닝동안 1실점(비자책), 5탈삼진, 2피안타, 3사사구로 팀 승리를 견인했다. 특히 장민제는 9회말 1사 1루 상황에서 정성철에게 마운드를 넘겼으나 정성철이 연속 볼넷을 허용, 1사 만루 위기에서 다시 마운드에 올라 서울고 타선을 잠재우며 팀의 승리를 직접 마무리 했다.

지난해 5월 제 41회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광주일고에 9회말 역전패 하며 우승을 내줬던 서울고는 이날 또다시 광주일고에 패해 결승문턱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 대회를 세 차례나 우승한 광주일고는 지난 28일 8강전에서 선린인터넷고를 10대 0, 5회 콜드게임으로 이기며 준결승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0일 열린 광주일고-서울고 준결승전. 7회 서울고 박건우가 2루에서 포스아웃되며 광주일고 유격수 허경민의 병살 송구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슬라이딩하다 충돌하고 있다. (동아일보 제공)



## 한국여자 핸드볼 베이징행 확정적

코र्ट디부아르 제압

최소한 조 2위 확보

■ 올림픽 최종 예선

한국 여자 핸드볼의 2008 베이징올림픽 본선 진출이 확정적이다.

임영철(백산건설) 감독이 이끄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30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남부도시 남 실내체육관 '라 파르나세'에서 펼쳐진 국제핸드볼연맹(IHF) 올림픽 최종예선 3조 풀리그 2차전에서 홈팀 프랑스와 25-25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전날 1차전에서 콩고를 37-23으로 제압한 한국은 코र्ट디부아르를 34-10으로 꺾은 프랑스와 1승1무(승점 3)로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프랑스 +24, 한국 +14)에서 밀려 2위를 유지했다.

콩고가 1승1무(승점 2)로 3위, 코र्ट디부아르는 2패로 꼴찌가 됐다.

한국은 약체 코र्ट디부아르와 최종전에서 무난히 승리하면 최소한 조 2위를 확보, 7회 연속 올림픽 진출의 금자탑을 세울 수 있다.

이날 무승부로 한국은 프랑스와 역대 전적에서 7전 5승1무1패를 기록했다. 1986

년 세계선수권대회 첫 대회에서 27-11로 승리했던 한국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예선(25-18 승)과 2003년 세계선수권대회 본선(27-25 승), 2004년 아테네올림픽 예선(30-23 승), 준결승(32-31 승)까지 5연승을 이어갔지만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5-6위 결정전에서 25-26으로 패한 적이 있다.

경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며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동점이 무려 13차례나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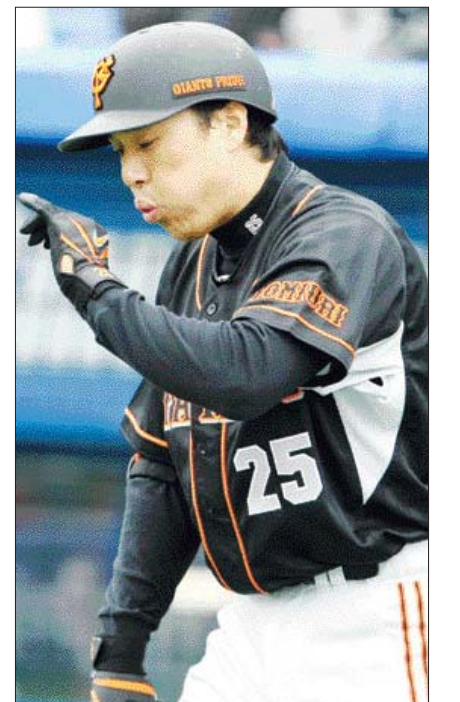
수문장 오영란(백산건설)의 선방과, 전반 7분 피터 허순영(2골·오르투스)의 포스트플레이와 우선희(5골·루마니아 브라쇼프)의 중앙 침투로 한국은 금세 6-4, 2골 차로 앞서나갔다.

리드를 유지하던 한국은 프랑스에 잇따라 속공을 허용하며 후반 25분 11-11로 동점을 만들어냈고, 전반을 14-13으로 간신히 앞선 채 마쳤다.

한국은 후반 24분 다시 들어온 우선희가 측면 돌파 슈팅으로 24-22로 앞설 때만 해도 승기를 잡는 듯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끈질기게 뒤따라왔고 경기 종료 2분 남기고 24-25로 역전까지 허용한 한국은 명백히 개인기를 발휘하며 25-25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종료 35초 전 우선희의 사이드 슈팅이 불발되면서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 ■ 일본 프로야구 소식



#### ‘새로운 수호신’

임창용 日 데뷔 첫 세이브

日 언론 “충격적 데뷔전”

일본 언론이 일본프로야구 데뷔 후 두 경기 만에 첫 세이브를 따낸 임창용(32·야쿠르트 스왈로스)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와 ‘스포츠닛폰’은 30일 인터넷판에서 ‘충격적인 데뷔전’ ‘새로운 수호신 등장’ 등을 써가며 임창용의 호투를 비중 있게 전했다. 임창용은 전날 요미우리전에서 9회 등판, 1이닝을 실점 없이 막고 첫 세이브를 올렸다.

일본 언론이 감탄한 인상을 받은 건 임창용의 최고 구속과 요미우리 토타타 다카하시 요시노부과 승부였다. ‘스포츠호치’는 임창용이 다카하시에게 5구째 폭속 약간 낮은 쪽에 시속 156km짜리 빠른 볼을 꽂아 넣었고 멍하게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첫 세이브를 올렸으며 ‘충격적인 데뷔전’이었다고 소개했다.

임창용은 경기 “컨디션은 최상이다. 지금이 페이스라면 40세이브도 가능하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 ‘엄지 또 다칠뻔’

이승엽 글러브 끼지 않고

타구 잡다 왼손에 맞아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수출한 왼손 엄지를 또 다칠 뻔한 위기를 넘겼다.

지난 29일 열린 요미우리-야쿠르트의 개막 2차전 2회 말, 1루 수비를 보던 이승엽은 야쿠르트 5번 애런 게이벨(36)이 친 1루 선상 타구를 글러브를 끼지 않은 왼손으로 잡으려다 공에 손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왼손 엄지 인대 수술을 받은 뒤 완치됐다고는 해도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국팬들에겐 가슴 철렁한 순간이었다. 이후 이승엽은 수비 도중 왼손을 쥐락펴락 하는 등 고통스러워했지만 곧 안타 2개를 쳐내는 등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이었다. 경기 후 한국 기자의 질문에도 “괜찮다”고 답했다.

이승엽은 지난해 7월 왼손 엄지손가락 통증을 호소해 시즌 후 엄지 아래쪽 ‘내측측부 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고, 지난달 19일 최종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완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KIA ‘우울한 출발’

### 중심타선 침묵...삼성전 원정 2연패

KIA타이거즈가 2008시즌을 2패로 시작했다.

KIA는 주말과 휴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과 개막 2연전에서 중심타선이 터지지 않아 원정 2연패를 기록했다.

KIA는 30일 삼성과 시즌 2차전에서 선발 윤석민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타선이 침묵을 지켜 한 점도 뽑지 못해 0-3 완봉패 당했다.

시범경기에서 화려한 득점포를 가동했던 KIA의 장성호-나지안-최희섭 클린업 트리오의 지난 29일 개막 경기에 이어 30일 경기에서도 상대투수로부터 단 하나의 안타도 뽑아 내지 못하는 극심한 부진을 보여 조병현감독을 안타깝게 했다.

선발 윤석민은 6이닝 동안 2피안타 3사구, 1실점하며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 투수의 명예를 썼다.

3회 박한이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해 1점차로 끌려가던 KIA는 3·8회 선두타자 발데스와 이현균이 각각 출루하면서 찬스를 만들었지만 두 차례 모두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 실패했다.

불편 싸움도 삼성의 승리였다. 안치만-오승환으로 이어지는 삼성 불펜은 이를 연속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 하며 팀

승리를 도운 반면 KIA는 유동훈, 양현종, 한기주의 불펜진이 추가 점수를 허용하며 뒷문 단속에 실패했다.

한편 지난 29일 개막전에서 KIA는 1회 2실점 한 뒤 5회 김상훈이 2008시즌 프로야구 1호 홈런포를 쏘아올리는 등 3점을 뽑아 승부를 뒤집었지만 뒷심 부족으로 3-4로 재역전 당하며 승리를 지키지 못했다.

KIA는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삼성 마무리 오승환을 상대로 이용규가 우월 2루타를 터뜨려 2사·3루 찬스를 잡았으나 3번 타자 장성호가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나 첫승 신고에 실패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무등경기장 야구장 새 단장

#### “시원한 야구 즐기세요”

무등경기장의 새단장으로 2008시즌 KIA 타이거즈의 ‘시원한 야구’를 볼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4월 1일 홈 개막을 앞두고 무등수영장을 철거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2008시즌 준비를 모두 끝마쳤다.

수영장 철거를 통해 180면의 주차공간이 새로 확보되면서 광주시는 무등경기장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프로야구 개막전 준비 완료

#### 수영장 철거...주차장 넓혀

또 경기장 좌측 너머로 보이던 수영장 건물이 철거되면서 경기장 전경도 한층 밝아졌다. 시범경기를 통해 첫 승을 보인 인공 잔디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0억원의 시비와 3억원의 KIA예산을 더해 교체한 필드터프는 충격 흡수가 뛰어나고 배수가 좋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수들은 잔디 교체로 부상 위험이 줄자 시범경기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를 선보여 2008시즌 ‘시원한 야구’를 예고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룩펠러 회원권**

최저 '룩펠러 회원권'비, 상공회비에서 별도인 정기할인 모야레포트타운으로 확장사업 하였습니다.

중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거벽소가 되었습니다.

문의: (062)351-0095

